

# 동물 시의 관점 연구

김명옥

## 차례

- I. 서론
- II. 낭만주의 시인들
- III. 홉킨스의 「황조롱이」와 로렌스의 「뱀」
- IV. 무어와 휴즈
- V. 결론

## I. 서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의 통일된 시각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 준하는 다양한 시각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요시한다. 인류사는 통일된 관점으로부터 이탈하여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를 부각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철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소개될 때 강한 반발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결국은 하나의 독립된 시각으로 인정되면서 서서히 기존의 전통 속에 흡수되어 기존의 관점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이러한 경향은 시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시에서 '자연'(nature)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격한 변화는 18세기 톰슨(James Thomson)의 『사계절』(*The Seasons*)(1730)에서 찾아볼 수 있다(Watson 45). 물론 그 이전에도 존 밀턴(John Milton) 뿐 아니라 밀턴 이전의 고전 시인들과 중세 작가들도 작품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을 도입하고 있으나(44) 이들은 주로 자연을 작품의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자연을 배경이 아닌 주제로 택하는 경향은 톰슨을 기점으로 하여 18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톰슨을 포함한 군소 작가들이 다

루는 '자연'은 소위 정적인 '풍경'(landscapes)이었고 그것도 "그림 같은 장면"(the picturesque)을 주로 지목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향은 그 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프라이스(Uvedale Price)는 그의 저서인 『그림 같은 자연에 관한 논평』(*Essay on the Picturesque*)(1794)에서 자연의 범주에 아름답고 숭엄한 느낌을 주는 풍경만이 아니라 거칠고 두려움을 주는 자연 현상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발언은 당시 '자연'이라면 응당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47).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은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를 필두로 하는 낭만주의 시인들의 보편적인 주제로 자리 잡게 되지만 특이한 것은 이 시대에도 자연의 범주에 시인들은 강과 산 그리고 들판의 식물들과 자연 풍광을 포함시키면서 동물은 대부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가 자연을 "그림에서처럼 즐거움을 주도록 자연 물상들을 배열하는 것"(a pleasing arrangement of natural objects such as one finds in a painting, 11)으로 풀이하고 있는 만큼 자연에 대한 개념이 19세기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낭만주의의 중심인물인 워즈워드의 경우도 그의 작품에서 꽃과 식물로 구성된 자연 풍경을 자연으로 수용하는 일에 일말의 의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Modiano 51).

사실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치중하여 그 둘 사이의 교감에 대한 논의가 비평가들의 주 관심사였다. 그 한 예로 코울리지의 자연에 관한 논평을 자세히 다룬 모디아노(Raimonde Modiano)는 그의 저서인 『코울리지와 자연의 개념』(*Coleridge & the Concept of Nature*)에서 코울리지의 자연 철학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논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개념 정의 보다는 인간의 느낌에 관한 미학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자연의 범주에 관해서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경우 자연에 인간이 자연에 의지를 부여한 결과물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Perkins 458)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논의와 함께 왜 자연 시에서 동물의 존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20세기에 들어서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자연 파괴를 비판하는 시대적 추세에 힘입어 동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고 그와 함께 생명체로서 동물

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등장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동물들을 주제로 한 영미시인들의 작품들을 동물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는 동물의 범주에 인간을 제외한 곤충, 조류 및 짐승을 포함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고찰은 자연히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논의이기에 생명 창조에 관계하는 기독교적 관점을 중심 원형으로 수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자연스럽게 동물의 타고난 생태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창작 기법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그러한 기법에 준하여 동물이 가진 생태적 특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고찰은 개별 시인에 따라 혹은 시대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동물시를 쓴 작가들 사이에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밝혀줄 것이다.

## II. 낭만주의 시인들

영미 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원형은 자연히 동물 탄생의 기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창세기(Genesis)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의 창조기간 중 다섯째와 여섯째 날에 바다와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면서(Genesis 1:20-25)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한다(1:28).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근대 동물연구가들은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17세기의 톱셀(Edward Topsell 1572-1625)은 동물이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도하는 산과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의 필요성을 설파한다(Merrin 18참조). 그러나 창조섭리에 근거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인류역사 속에서 보호자와 피보호자에서 먹고 먹히는 살생의 적대 관계로 변질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일차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

아 홍수 이후 동물이 인간의 먹이로 허용되면서("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will be food for you." Genesis 9:3) 인간과 동물은 서로 경계하는 대상이 되었다(9:2)<sup>1)</sup>. 자연히 인간은 꽃과 열매로 인간을 즐겁게 하는 수동적인 식물을 선호하는 반면에 공격적이고 동적인 동물은 잔인하고 흉측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동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창조 질서의 모형에서 많이 이탈되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가들의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양상을 낭만주의 전기(pre-romanticism) 시인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호랑이」 ("The Tiger")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블레이크의 「호랑이」는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의 「종달새에게」 ("To a Skylark")와 키츠(John Keats 1795-1821)의 「나이팅게일 송가」 ("Ode to a Nightingale")와 함께 낭만주의시대의 대표적인 동물 시로 꼽을 수 있다. 블레이크의 「호랑이」에서 시인으로 대변되는 화자는 무섭지만 균형 잡힌 호랑이의 몸체를 창조주가 만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포착하고 그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 호랑이의 위협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외형을 "무서운 균형"이라 부르고 살아 숨 쉬는 생명체를 탄생시킨 조물주의 능력에 경탄하는 화자의 감정을 시인은 연속적인 의문문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호랑아! 호랑아! 한밤 숲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호랑아,  
 어떤 불멸의 손 혹은 눈이  
 너의 무서운 균형을 빚어낼 수 있었니?  
 . . . . .  
 그리고 어떤 어깨, 어떤 기술이  
 네 심장의 힘줄을 비틀 수 있었는지?  
 또 네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어떤 무서운 손? 어떤 무서운 발이?

1)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최초 에덴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언 한다: "The wolf and the lamb will feed together, and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but dust will be the serpent's food.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Isaiah 65:25)

Tyger! Tyger! burning bright  
 In the forests of the night,  
 What immortal hand or eye  
 Could frame thy fearful symmetry?  
 . . . . .  
 And what shoulder, & what art,  
 Could twist the sinews of thy heart?  
 And when thy heart began to beat,  
 What dread hand? & what dread feet? (*Romantic Poetry and Prose* 25)<sup>2)</sup>

각 부분들을 빚어가는 창조의 긴박감과 창조주의 능란한 손놀림이 축약된 구문 속에, 그리고 깜깜한 밤을 배경으로 이글거리는 호랑이 눈빛이 주는 위용과 공포의 복합적인 감정은 "무서운 균형"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그토록 두려운 맹수를 만든 창조주가 동시에 순한 "양"(lamb)도 만든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양을 만든 그분이 너를 만들었니?"(Did he who made the Lamb make thee?)라고 묻고 있어 동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미묘한 이기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즉 창조주의 관심이 인간의 행복에 있다면 호랑이 같은 짐승은 창조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은밀히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블레이크는 창조론의 시각에서 동물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주의 시각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시각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차후 개별 시인 혹은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 수용·보완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사실 블레이크가 다른 동물 시인 「양」 ("The Lamb")에서 "양"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를 지칭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하면서 "그분은 스스로를 양이라 부르기에.....나는 아이고 당신은 양이니 /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불린다."(For he calls himself a Lamb...I a child & thou a lamb, / we are called by his name, "The Lamb" RPP 19)고 표현하여 블레이크의 시가 점차 기독교에 기초한 개인의 신비 사상으로 발전할 것(강엽 v)을 예견케 한다. 이

2) 앞으로 *Romantic Poetry and Prose*에서 인용된 시는 RPP로 약기하고 페이지를 밝힌다.

러한 양상은 동물을 살아있는 객체로 인정하는 중립적인 시각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낭만주의 시인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블레이크 이후 본격적인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목적에서 자연을 찾았으니 이를 「나이팅게일 송가」와 셸리의 「종달새에게」서 살펴보자. 우선 키즈의 「나이팅게일 송가」는 시인이 새를 통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주제로 한다. 시인은 황홀한 새의 노래 가락에 심취한 나머지 그 새와 함께 세상을 등지고 숲속으로 사라지기를 회구하면서 실제로 그는 상상의 나라를 타고 새와 함께 숲속을 방문한다.

이미 너와 함께 왔구나! 밤이 온화하다  
마침내 달의 여왕이 왕좌에 앉아  
별 선녀 무리에 빙 둘러 싸여 있다.  
그러나 이곳은 빛이 없다  
오직 푸른 어둠과 꾸불꾸불 도는 이끼 낀 길을 지나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미풍에 실린 빛이 있을 뿐.

Already with thee! tender is the night,  
And haply the Queen-Moon is on her throne,  
Clustered around by all her starry Fays;  
But here there is no light,  
Save what from heaven is with the breezes blown  
Through verdurous glooms and winding mossy ways. (RPP 539)

상상으로 이미 새와 함께 숲속에 들어온 화자는 들꽃과 향기와 날벌레 그리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함께 어우러진 숲속에서 세상이 주는 아픔을 영원히 잊기 위해 황홀한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죽기를 회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소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에 실망하여 시인은 새를 "속이는 요정"(deceiving elf)으로 부른다. 이처럼 처음에 나이팅게일을 "가벼운 날개를 가진 나무 정령"(light-winged Dryad of the trees) 혹은 "불멸의 새"(immortal Bird)로 극찬

하지만 개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이는 요정"으로 비하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를 바라보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을 엿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감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인의 모습이 낭만주의의 일반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음에 살펴볼 셸리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셸리의 「종달새에게」는 석양을 배경으로 비상하는 새의 모습을 키츠의 시에서 새와 함께 숲속을 날아다니는 상상의 장면만큼이나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무는 태양  
 그 위로 구름이 빛나는  
 황금 빛 속에서,  
 너는 떠서 달린다.  
 마치 경주를 막 시작한 실체 없는 기쁨처럼.

희미한 자줏빛 저녁이  
 너의 비상 주변에서 녹고  
 하늘의 별 인양  
 환한 대낮에  
 너는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나는 너의 전율하는 환희를 듣는다

In the golden lightning  
 Of the sunken sun,  
 O'er which clouds are bright'ning,  
 Thou dost float and run;  
 Like an unbodied joy whose race is just begun.

The pale purple even  
 Melts around thy flight;  
 Like a star of Heaven,  
 In the broad daylight  
 Thou art unseen, but yet I hear thy shrill delight. (RPP 450)

저무는 태양빛을 받아 빛과 색조 그리고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장면을 셸리는 "실체 없는 기쁨"과 "하늘의 별"에 비유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시인이 그를 "쾌활한 정령"(blithe Spirit)으로 혹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새를 "실체 없는 기쁨"으로 추상화하는 방식은 나이팅게일을 "나무의 정령"과 "요정"으로, 혹은 "불멸의 새"로 상징화하는 키츠와 유사하게 새를 독립된 생명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추상 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셸리의 경우 눈앞에서 사라진 새를 "사색의 빛 속에 숨은 / 시인"(a Poet hidden / In the light of thought)에 비유하여 시인 자신의 투사체로 여기고자 한다. 이처럼 새를 잠시 자신의 아픔을 달래줄 위안물과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물로 본다는 관점에서 두 시인 모두 동물을 향한 자기 중심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오히려 호랑이에 대한 외경심을 노래한 블레이크가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접근하는 자세에서 두 시인 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보인다.

### Ⅲ. 홉킨스의 「황조롱이」와 로렌스의 「뱀」

낭만주의 이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창작활동을 한 홉킨즈(Gerard Manly Hopkins 1844-89)와 로렌스(D. H. Lawrence 1885-1930)는 동시대의 문학 범주에서 각각 독립된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특히 홉킨스는 19세기 후반에 문학 활동을 했으나 동시대의 빅토리아 시인들과 달리 집약된 구문과 '도약 리듬'(sprung rhythm) 등 독창적인 창작법을 개발·활용하여 20세기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작가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신원철 15-101 참조). 물론 두 시인의 문학 세계는 그들의 개인 삶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전자는 철저한 기독교인의 신앙적 삶으로 일관하면서 그의 신앙을 시의 주제로 택한 반면에 로렌스는 자아 추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경험을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홉킨즈의 「황조롱이」("Windhover")와 로렌스의 「뱀」("The Snake")이 각각 사실적 묘사에 입각한 객관적 시각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살펴보기로 한다.

홉킨즈의 「황조롱이」 ("The Windhover")는 기독교적 관점을 유감없이 들 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도 차이는 있으나 창조주의 생명 창조에 근거한 블레이크 계열에 속한다 하겠다. "우리 주 그리스도"(To Christ our Lord)라는 부제를 가진 「황조롱이」의 전반부는 작가의 시야에 들어온 황조롱이의 비상(飛翔)을 박진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쉼표 없이 이어지는 연속 8행(run-on lines)에서 시인은 때로는 마치 스케이트 링을 유연하게 회전하듯이, 때로는 앞으로 쪽쪽 뻗으면서 자유자재로 허공을 누비는 황조롱이의 비행을 실감 있게 표현하여 현장감 넘치는 장면 연출에서 단연 선구적이다.

나는 보았다 오늘 아침, 아침의 총아를, 낮의 빛 왕국의  
 황태자, 얼룩진 새벽에 이끌려 나온 때,  
 그 아래로 굴러가는 탄탄하고 안정된 대기를 타고서,  
 저 높이 활보하는 것을, 물결치는 날개를 고삐삼아  
 얼마나 황홀해서 달리는가! 그 후 회전하며 획획 앞으로 나아간다,  
 마치 스케이트 뒤축이 활 곡선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돌진하고 미끄러지면서 강풍에 저항한다. 숨어있는 내 마음은  
 새로 인해 설렷다—새의 성취와 숙달에!

I caught this morning morning's minion, king-  
 dom of daylight's dauphin, dapple-dawn-drawn Falcon, in his riding  
 Of the rolling level underneath him steady áir, & striding  
 High there, how he rung upon the rein of a wimpling wing  
 In his ecstasy! then off, off forth on swing,  
 As a skate's heel sweeps smooth on a bow-bend: the hurl &  
 gliding  
 Rebuffed the big wind. My heart in hiding  
 Stirred for a bird, —the achieve of, the mastery of the thing!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 81)<sup>3)</sup>

3) 앞으로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에서 인용한 시는 NAMP로 약기 하고 페이지를 밝힌다.

밑으로 "굴러가는 탄탄하고 안정된 대기"를 타고서 물결치는 날개를 고삐삼아 둥근 원을 그리고 빙 돌며 날고 있는 매의 역동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홉킨즈는 블레이크와 셸리의 수준을 넘어선다. 형용사와 명사로 이어진 복합 수식 어구는 매의 역동적인 비상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황홀한 감흥에 압도되어 새의 속달된 비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은 후반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야성적인 아름다움과 용기와 행위, 오, 자태, 긍지, 그리고 영광이 여기에서  
허물어지는구나! 그리고 너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이 억만  
배나 더 아름답고, 더 위험하다, 오 나의 기사여!

놀라운 일이 아니로다: 꾸준한 수고가 이랑 따라 가는 쟁기를  
광채 나게 하고 푸르스름한 등걸볼도, 아 사랑하는 자여,  
떨어지면서 스쳐 벗겨져 황금주홍색 상처를 내는구나.

Brute beauty & valour & act, oh, air, pride, plume, here  
Buckle! and the fire that breaks from thee then, a billion  
Times told lovelier, more dangerous, o my chevalier!

No wonder of it: shéer plód makes plough down sillion  
Shine, & blue-bleak embers, ah my dear,  
Fall, gall themselves, & gash gold-vermilion. (NAMP 81)

블레이크가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호랑이의 균형미에서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감탄하듯이 홉킨즈는 매의 속달된 비상의 아름다움에서 흑독한 훈련을 체험한다. 그는 야성의 미와 용기와 활동 뿐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과 우월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를 "허물어진다"(buckle)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과 극기의 완성을 구현한 "나의 기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떠올린다. 그 뿐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하는 삽질과 등걸볼에서도 '고통과 미'의 비밀스런 함수 관계를 깨닫고 있다. 이처럼

홉킨스의 동물 시는 사실적 묘사에 철저하면서도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즉각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수용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낸다. 이는 방법과 목적은 다르지만 자연의 생물체를 자신의 위안물로 삼는 낭만주의 시인들처럼 동물을 향한 객관적인 접근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로렌스의 경우 20세기 모더니즘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동시대의 문학적 특성을 공유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집요하게 추구해 가는 만큼 이러한 양상은 그의 소설작품 뿐 아니라 시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로렌스는 시 보다는 소설을 더 많이 썼으나 「뱀」 ("Snake")을 포함한 몇몇 시들은 탁월한 솜씨를 보인다. 특히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뱀」은 사실적 기법에서 뛰어나며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을 본능적 욕구에서 찾으려는 그의 시각에 기초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무더운 여름날 자기보다 먼저 와 물을 먹는 뱀을 발견하고 묵묵히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크고 울창한 구주콩나무의 짙고, 야릇한 향내 나는 그늘 아래  
나는 주전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는 기다려야 했다. 서서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그 수조에 와 있었기에.

In the deep, strange-scented shade of the great dark carob tree  
I came down the steps with my pitcher  
And must wait, must stand and wait, for there he was at the trough before  
me. (NAMP 317-18)

뱀을 먼저 온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접하고 기다려주는 화자의 태도는 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능하다. 시인은 화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뱀의 동작들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한다.

그는 어두운 흙 담의 틈새로부터 몸을 뺀고 내려와  
황갈색의 부드러운 배를 천천히 끌면서 돌 물통 가장자리를 넘어

돌바닥 위에 그의 모가지를 엮었다,  
물이 꼭지에서 작고 맑은 소리로 푹푹 떨어지는 곳에서  
그는 쪽 뺨은 주둥이로 조금씩 마셨다  
그의 반듯한 잇몸으로 부드럽게 받아서 그의 늘어진 긴 몸속으로 들어켰다  
말없이.

He reached down from a fissure in the earth-wall in the gloom  
And trailed his yellow-brown slackness soft-bellied down, over the edge of  
the stone trough  
And rested his throat upon the stone bottom,  
And where the water had dripped from the tap, in a small clearness,  
He sipped with his straight mouth,  
Softly drank through his straight gums, into his slack long body,  
Silently. (*NAMP* 318)

마치 눈앞에 전개되는 장면을 카메라 렌즈로 포착하듯이 순차적인 뱀의 움직임  
을 쫓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황금색 뱀은 독이 있기에 반드시 죽어야 한  
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시각과 다른 외부의 상식적인 충고로 갈  
등하게 된다. 뱀을 독립된 생명체로 인정하고 살려 두려는 개인 생각이 결국  
독뱀을 방치하는 것이 겁쟁이의 행위라는 외부의 소리에 순간적으로 굴복하고  
그는 검은 틈 사이로 사라지는 뱀을 향해 막대기를 던진다. 결국 심한 경련으  
로 몸부림치면서 사라지는 뱀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시각에 굴복한 자신과 그  
렇게 가르치는 교육에 강한 불쾌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즉시 그것을 후회했다  
얼마나 하찮고, 속되고, 비열한 행동인가를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과 저주받은 인간교육의 목소리들을 경멸했다.

그리고 나는 알바트로스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소원했다 나의 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And immediately I regretted it.

I thought how paltry, how vulgar, what a mean act!  
I despised myself and the voices of my accursed human education.

And I thought of the albatross,  
And I wished he would come back, my snake. (*NAMP* 319)

이 상황에서 시인은 코울리지가 쓴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 나오는 알바트로스 새를 인유하여 동물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생명(one life)으로 보는 코울리지의 생각(Watson 163)과 닮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화자는 자신의 신념을 견지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회하려는 듯 " [그] 는 신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내게 다시 왕처럼 보였다"( [he] looked around like a god..... he seemed to me again like a king, *NAMP* 319)고 표현하여 뱀을 신 혹은 왕의 위치로 격상하고 나아가서 뱀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매우 자긍심을 느꼈다"(I felt so honoured, 318)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결미는 그의 모든 작품을 자아 탐구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로렌스의 창작 행위(김동선 19 참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그의 시각이 동물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낭만주의 시인들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 IV. 무어와 휴즈

지금까지 살펴본 시인들은 구색 맞추듯 동물 시들을 한, 두 편 쓰고 있다면 현대 시인 무어(Marianne Moore 1887-1872)와 휴즈(Ted Hughes 1930-1988)는 곤충 뿐 아니라 조류 그리고 짐승에게 집요한 관심을 보이면서 동물을 주제로 한 많은 시를 썼다. 특히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 시대에 창작활동을 한 무어의 동물에 대한 관심은 추종을 불허한다. 그녀가 작품 주제로 다룬 동물의 범주에는 코뿔소(buffalo), 원숭이, 코끼리, 악어(crocodile), 뱀, 달팽이, 날 쥐(jeoboa), 해파리(jelley-fish), 기린, 카멜리언(chameleon), 천

산갑(pangolin) 뿐 아니라 상상의 동물인 용(dragon), 일각수(unicorn)등을 포함한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무어는 학창시절부터 생물학 강의를 즐겨 들었고 특히 동물도감에 소개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그녀에게 동물의 매력은 각자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살아가는 소박함 때문이었으니(*A Marianne Moore Reader* xvi) 동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은 그 어떤 작가보다 창조주의 시각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녀는 보기 흉한 벌레나 해충조차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생명체로 바라본다(Merrin 26). 세밀한 관찰을 통해 동물의 생태적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내용면에서 초월적인 생명의 정체를 탐구하는 자세 때문에 그녀의 시는 다소 어렵고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창작 특성은 암시성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모더니즘의 문학적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는 주로 동물의 사실적 표현에 충실한 두 편의 시를 통해 동물을 향한 그녀의 시각을 읽고자 한다. 그 중 「날 쥐」("The Jeoboa")<sup>4)</sup>는 사막에 사는 작은 동물인 '날 쥐'를 주제로 한 시이다. 1, 2부로 구성된 시의 1부는 동물들을 장식품으로 즐기면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삶을 주로 권력과 부를 소유한 계층을 통해 보여준 후 마지막 부분에 날 쥐를 등장시킨다. 시인은 날 쥐의 생태적 특성을 주로 인간과 대조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부각시켜 그녀의 시각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다.

작은 사막의 쥐,  
유명하지 않으며  
물 없이 살아가지만  
행복하다. 밖에 나가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토굴 속  
집에서 사는, 사하라사막의 들쥐는  
반짝이는 은빛 모래

집을 가지고 있다. 편안함과

4) 쥐목에 속하는 포유류로 외형은 캥거루와 비슷하여 앞다리는 작고 뒷다리는 크고 잘 발달하였다. 황적갈색의 몸과 끝부분이 흑색인 꼬리를 가졌으며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8m정도 뛰는 점프력이 탁월하다.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7권, 46)

기쁨이라니. 끝없는 모래,  
 불가사이하게 모래가 분출되고,  
 물도, 야자수도, 상아 침대도 없는,  
 오직 작은 선인장뿐이다.....

a small desert rat,  
 and not famous, that  
 lives without water, has  
 happiness. abroad seeking food, or at home  
 in its burrow, the Sahara field-mouse  
 has a shining silver house

Of sand. O rest and  
 joy, the boundless sand.  
 the stupendous sand-pout,  
 no water, no palm-trees, ivory bed,  
 tiny cactus..... (*The Complete Poems of Marianne Moore* 13)<sup>5)</sup>

끝없는 사막의 모래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작은 날 쥐의 삶의 터전에는 먹을 물도, 사막에 흔한 야자수도 없고 오직 선인장뿐이다. 그곳에 인간세상에서 부를 상징하는 "상아 침대"같은 사치스런 풍요가 없어도 날 쥐는 늘 편안하고 기쁘다. 여기서 비록 하찮고 볼품없는 날 쥐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누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도 늘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시인의 시각은 동물을 바라보는 무어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 사막의 날 쥐가 마치 리듬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추듯 뛰어가는 동작을 주시하는 시인에게서 우리는 날 쥐를 향한 시인의 애정 깊은 경탄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마치 베두인 통소의  
 고르지 못한 노래 가락처럼

---

5) 앞으로 *The Complete Poems of Marianne Moore*에서 인용한 시는 CP로 약기하고 페이지를 밝힌다.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길게 뛰다가 날 쥐는 작은 수레바퀴 다리로  
먹이 줍기를 멈추고, 캥거루 빠르기로 달려  
양치 씨앗에 발자국을 만든다.

틀림없이 통소에 맞춘  
뽀뽀기다.  
기둥 같은 몸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세모진 굽은 발톱으로  
곧게 세우고—굴을 향해 쾅쾅 쾅쾅 뛰다가  
뒷다리와 셋째 발가락 같은 꼬리로 지탱하고 선다.

By fifths and sevenths,  
in leaps of two lengths,  
like the uneven notes  
of the Bedouin flute, it stops its gleaning  
on little wheel castors, and makes fern-seed  
foot-prints with kangaroo speed.

Its leaps should be set  
to the falgeolet;  
pillar body erect  
on a three-cornered smooth-working Chippendale  
claw—propped on hind legs, and tail as third toe,  
between leaps to its burrow. (*CP* 14-5)

시인은 통소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절도 있게 뛰는 모습에서 날 쥐의  
우아한 리듬 감각을 발견하고 날 쥐의 우아한 뽀뽀기에 매료되어 "인간의 무지  
로 무시된 / 우아함"(an elegance/ ignored by one's ignorance, 13)이라 표현  
할 만큼 동물의 특성에 찬사를 보내는 반면에 이를 무시하는 인간의 오만을 간  
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시인은 캥거루처럼 재빠르게 뛰다가 삼각형의 발톱  
으로 땅을 딛고 뒷다리와 꼬리로 지탱해서 몸체를 곧게 세우는 동작을 미세한



적 시각으로 세밀히 관찰한다. 더구나 날 쥐가 "마치 날개가 달린 양 성냥처럼 가는 뒷다리로 / .....튀어 오르면서 / 추 역할을 하는 꼬리가, / 튀는 속도로 인해 곧게, 파동 치는"(as if on wings, from its match-thin hind legs, in / daytime or at night; with the tail as a weight, / undulated out by speed, straight, 14) 점프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리와 꼬리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멋진 묘기를 연출하는 날 쥐에게서 동물의 생태적 특성 그 이상을 감지한다. 날 쥐를 "우아함을 지닌 특종"이라 명명하는 시인의 시각은 바로 이 땅에 생물들을 만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 saw that it was good. Genesis 1:25)고 만족해하는 창조주의 그것과 일치한다.

동물을 우아한 족속으로 생각하는 무어의 표현은 「천산갑」 ("Pangolin")에서 더욱 빈번히 등장한다. 천산갑<sup>6)</sup>을 묘사할 때 시인은 "우아함" 혹은 "은혜"라는 의미의 "grace"를 명사 또는 동사로 혹은 "graceful"의 형용사형으로 바꾸어가면서 일곱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시에서도 시인은 천산갑의 외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를 "예술 공학도" 혹은 유명한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복제품"으로까지 극찬한다.

또 다른 갑옷 입은 동물이 있으니—비늘이  
 솔방울처럼 정교하게 차곡차곡 덮여  
 연속되는 중심의  
 꼬리 선을 이루는구나! 머리와 다리 그리고 모래주머니 달린  
 영경귀 모양에 가까운 이놈은,

밤의 작은 예술 공학도이며  
 그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복제품이로다—

Another armored animal—scale  
 lapping scale worth spruce-cone regularity until they

6) 천산갑은 머리, 몸, 앞 뒷다리 및 꼬리의 윗면이 기와 모양으로 늘어선 비늘로 덮여 있고 비늘 사이에는 짧은 센 털이 나있다. 머리는 가늘고 길며 귀, 눈은 매우 작은 야행성으로 낮에는 나무구멍 혹은 굴에서 사는 포유동물이다(『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26권, 303).

form the uninterrupted central  
tail-row! This near artichoke with head and legs and  
grit-equipped gizzard,  
  
the night miniature artist engineer is,  
yes, Leonardo da Vinci's replica— (CP 117)

비늘이 꼬리까지 덮인 잉경귀 모양의 천산갑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을 공처럼 뽄뽄 말아서 공격의 빈틈을 보이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에서는 공학도 이상의 기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버팀대 혹은 손이나 빗자루 혹은 도끼"(prop or hand or broom or ax)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꼬리를 만능의 "멋진 도구"(graceful tool)라 표현하여 보잘 것 없는 동물을 우아한 생명체로 인지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만물이 "장엄함"과 "탁월함"의 속성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태양과 달과 낮과 밤 그리고 인간과 동물  
모두는 장엄함을 지니고 있으니  
인간이 아무리 사악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도다! 각자 얼마나 탁월한가!

Sun and moon and day and night and man and beast  
each with a splendor  
which man in all his vileness cannot  
set aside; and each with an excellence! (CP 118)

이처럼 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세계에서 장엄함과 탁월함을 느끼는 시인의 시선에는 동물 마다 인간의 덕목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보인다. 몸을 수축하는 달팽이에게서 겸손의 미덕을(85) 그리고 타조의 깃털에서 정의(justice)(99)를 읽을 수 있는 시인의 능력은 동물을 만든 자의 정교한 솜씨와 선한 뜻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무어의 이러한 신앙적 시각은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치밀하게 묘사하면서 중립적인 시각을 철저히 유지한다는 점에

서 동물을 자신의 신앙적 표상으로 치환하는 홉킨즈와 차별성을 보인다. 물론 개인의 종교와 감정을 객관화하는 무어의 기법은 객관성을 문학의 주요 기법으로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끝으로 살펴볼 휴즈는 1950년 이후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영국 시인으로 당시의 "시 운동파"(the Movement) 일원이었으나 그들과 다른 차별적 세계를 개척하였다. 그는 화스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창작이 생명체의 근원인 우주의 힘(universal forces) 즉 생명 에너지를 밝히고 있음을 언급한다(Fass 199). 그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생명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간의 경우 내면세계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될 통로가 막혔을 때 인류에게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Winter Pollen* 145)<sup>7)</sup>. 여기서 생명에너지를 성본능으로 대치하면 로렌스와 흡사한 휴즈의 이론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학 이론의 이드(the id)와도 일맥상통한다. 휴즈의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만큼 초기 동물 시에서는 주로 생존을 위한 생명 에너지의 표출 현장인 동물들의 살생 장면을 주제로 다룬다. 「회에 앉은 매」("Hawk Roosting"), 「수달」("The Otter"), 그리고 「티티새」("Thrushes")와 「표범」("The Jaguar") 등이 주로 동물들의 생태적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그의 동물 시들은 인간 본성을 폭로하는 알레고리적 경향으로 발전한다(Scigai 3).<sup>8)</sup>

여기서는 그가 쓴 초기 동물 시 중에서 매를 주제로 한 「빛속의 매」("The

7) 휴즈는 과거에는 이 내면의 에너지가 종교의식이나 신화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으나 이런 활동이 무력해진 현대에는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계 대전과 같은 무거운 재앙이 초래할 것을 예언한다(148-49).

8) 그 대표적인 예가 "까마귀"를 주인공으로 한 『까마귀』(*The Crow: From the Life and Songs of the Crow* 1970)이며 이 연작 시집에서 시인은 동물 까마귀를 신화적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간 본유의 모습을 상실한 현대인의 실상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후기 시집 『동굴 새』(*Cave Birds: An Alchemical Cave Drama* 1978)에서는 인간의 변형을 유도하는 역할(Gifford and Roberts 199-203)을 하는 매체로 동물을 활용하고 있어 동물을 순수한 생명체로 접근하는 초기 시와 구별된다.

Hawk in the Rain")(1957)를 통해 동물을 바라보는 휴즈의 시각을 살펴보자. 이 시는 그의 첫 시집인 『빗속의 매』 (*The Hawk in the Rain*)(1957)의 표제 시로 시인은 화자인 인간 "나"와 "매"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상이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대비시켜 가면서 매의 특성에 집중한다. 첫 연에서 발목을 거머쥐는 진흙땅에서 힘겹게 발을 빼면서 걸어가는 화자 "나"의 모습을 소개한 다음 땅의 악천후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매를 주시한다. 지상을 벗어날 수 없는 '나'는 비바람으로 질척이는 땅과 사투를 벌이는 반면 매는 시선을 높은 허공에 고정시키고 전혀 힘들이지 않고 유유히 하늘에서 날고 있다.

그러나 매는

수고하지 않고서 공중 높이 그의 고요한 시선을 매달고 있다.  
그의 날개는 물결치는 대기 속에서 마치 환영처럼 흔들림 없이  
무게 없는 고요 속에서 모든 창조물을 거머쥔다,  
한편 탕탕 때리는 바람은 고집 센 울타리를 망치고.....

but the hawk

Effortlessly at height hangs his still eye.  
His wings hold all creation in a weightless quiet,  
Steady as a hallucination in the streaming air,  
While banging wind kill these stubborn hedges.....(11)

강한 비바람으로 악전고투하는 지상의 풍경과 달리 대기에 몸을 싣고 고요와 평정을 유지하면서 날개로 지상 만물을 제압하는 매의 모습은 홉킨즈의 황조롱이와 흡사하다. 여기서 "매달다"와 "거머쥔다"의 의미가 주는 능동적인 강인함과 지탱력이 숙련을 통한 긴장과 평정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홉킨즈의 「황조롱이」를 연상하게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즉 후자는 숙련된 비상의 아름다움을 펼치는 매를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연상하여 영적 차원의 완성미로 치환하는

반면에 휴즈는 마지막 연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통해 매의 비참한 최후를 냉혹할 정도로 차분하게 묘사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사는 날에 혹여 거친 날씨를

만나면 거꾸로 곤두박질하여 그의 눈에서 허공이  
추락하고, 육중한 땅들이 그 위로 충돌하며,  
지평선이 그를 가둔다; 그의 동그랗고 천진한 눈이  
짓뭇개져 그의 심장의 피를 땅의 진창에 뒤 섞는다.

That maybe in his own time meets the weather

Coming the wrong way, suffers the air, hurled upside down,  
Fall from his eye, the ponderous shires crash on him,  
The horizon trap him; the round angelic eye  
Smashed, mix his heart's blood with the mire of the land. (11)

지상의 악천후에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던 매이지만 대기를 강타하는 불리한 날씨가 엄습하면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화자의 전지적 시각이 곤두박질하는 매의 시각으로 바뀌면서 대기가 매 위로 추락하고 그 위로 땅이 충돌하는가 하면 지평선 안에 매 자신이 갇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실감 있게 연출되고 있다. 매의 천사 같은 "천진한 눈"이 땅과 충돌해서 짓이겨진 채 땅의 진창과 피와 엉키는 장면은 시선을 허공에 매달고 천하를 소유한 듯 자유자재로 날던 매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시인은 일차적으로 매의 일상적 모습과 최후를 부각시켜 인간과 동일한 생명 에너지를 가진 동물의 실체를 강조한다. 동시에 육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초월적 가능성이 환상처럼 좌절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실존적 실상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읽게 되며 이러한 암시는 휴즈의 후기 시가 동물을 의인화하

여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케 한다.

## V.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 걸쳐 동물을 주제로 한 시인들의 작품들을 시대별로 섭렵해 보았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 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부속물로 생각하고 동물들을 무시하거나 우매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그 후 차츰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부터 벗어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동물을 수용하고 이를 작품의 주제로 삼기까지 동물시의 등장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살펴본 동물 시들을 통해 우리는 영미 문학에서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인정하고 이를 작품의 주제로 삼은 작자들의 궤적을 추적해 볼 수 있었다. 우선 동물을 생명체로 수용하고 대접하려는 마음가짐에는 처음 동물들을 창조하고 이를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마음으로 키워가고 돌보는 창조주의 마음과 그러한 시각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작가의 개별적인 종교나 문학 이론뿐 아니라 작가들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선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묘사하는 사실적 기법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시인들의 시각에 관해 대체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실적 시각이며 또 하나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로서의 아름다움과 생존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다룰 때 개인의 이론이나 생각을 배제하면서 끝까지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자세이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시인들은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물을 동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홉킨즈, 로렌스 그리고 무어와 휴즈가 동물의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하였으며 그 중에서 모더니즘 시인인 무어가 가장 특출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블레이크와 홉킨즈, 로렌스 그리고 휴즈는 개인의 문학적 이론 혹은 개인 신앙을 직설

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개입시킴으로 인해 객관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낭만주의 시인인 셸리와 키츠의 경우는 동물을 통해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적 성향 때문에 사실적인 묘사와 객관성에서 가장 미흡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문학 배경인 낭만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로렌스와 휴즈는 모든 생물이 동일한 에너지 혹은 성 본능을 소유한다는 문학 이론에 준해서 동물시를 쓰고 있기에 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개인의 독특한 사고를 은밀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낭만주의 시인들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동물 시의 관점 연구는 각 시인의 한, 두 편의 작품을 시대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본격적인 동물 시 연구는 영미시의 동물 시들을 통시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나아가서 각 시인의 전 작품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면밀히 고찰할 때 정확한 면모들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인 용 문 헌

- 강엽.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사상』.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 김동선. 『Lawrence의 自我主義: 生涯와 作品』.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김명옥. 『T. S. 엘리엇과 영미시 비평』.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서울: 동아출판사, 1986.
- 신원철. 『역동하는 시: 사제시인 G. M. 홉킨즈』. 서울: *L. I. E.*, 2009.
- 『한영해설성경』. 한영 해설 찬송가 편찬위원회. 아가페출판사, 1998.
- Bentley, Paul. *The Poetry of Ted Hughes: Language, Illusion & Beyond*. London: Longman, 1988.
- Bloom, Harold and Lionel Trilling. *Romantic Poetry and Prose*. London: Oxford UP, 1973.
- Ellmann, Richard and Robert O'Clair,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 New York: Norton, 1973.
- Fass, Ekbert. *Ted Hughes: The Unaccommodated Universe*. Santa Babara: Black Sparrow, 1980.
- Gifford, Terry and Roberts Neil. *Ted Hughes: A Critical Study*. London: Faber, 1981.
- Hughes, Ted. *Winter Pollen: Occasional Prose*. Ed. William Scammell. New York: Picador, 1995.
- Merrin, Jeredith. *An Enabling Humility: Marianne Moore*. London: Rutgers UP, 1990.
- \_\_\_\_\_. *The Hawk in the Rain*. London: Faber, 1984.
- Moore, Marianne. *The Complete Poems of Marianne Moore*. New York: Macmillan, 1981.
- \_\_\_\_\_. *A Marianne Moore Reader: Poems and Essays*. New York: Viking, 1974.



- Modiano, Raimonda. *Coleridge & The Concept of Nature*. London: Macmillan, 1985.
- Perkins, George and Barbara Perkins, eds.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7th ed. New York: McGraw-Hill, 1990.
- Watson, J. R.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London: Longman, 1985.

Abstract

## A Study of Perspectives of the Animal Poems

Myeong-Ok Kim

This article is to pursue the diverse perspectives of animal poems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Some poets of the 18th century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nature, which appeared in their works as a main theme rather than as a background. In the 18th century nature meant beautiful landscapes chiefly of trees and flowers with animals excluded. But with man's increasing awareness of the living beings in nature, the poets steadily began to write animal poems.

The archetype of perspective on animals is God's because when he made them first, he blessed with accepting them as independent living beings and taking care by feeding them. When from God's perspective surveying the animal poems we have found two distinctive perspectives of the animal poets: the realistic description and the objective attitude toward animals. G. M. Hopkins, D. H. Lawrence and Marianne Moore and Ted Hughes share the realistic point-of-views by describing the biological and ecological traits on the basis of the keen observation, which proves their acceptance of animals as living independent beings. And in the objective perspective Moore is the most distinctive. Her view on the animals is nearest to God's perspective in that she accepts the living animals as wonderful created beings with "grace" and "excellence".

On the other hand, the romantic poets, Keats and Shelly, show the most selfish perspective with trying to satisfy their private wishes through the birds. They failed in recognizing them as the independent identity by using

them as symbolic emblems or abstracted images. Hopkins in his "The Windhover" shows the excellence in the realistic description on the flying hawk but his perspective has a limitation by replacing the mastery of the Hawk with that of Christ exposing his private faith. And Lawrence with Hughes reveals in their animal poems the man-centered perspective using animals as a medium to express their unique ideas furtively.

**Key words : perspective, one life, jeoboa, pangolin, life energy, "The Hawk in the Rain"**

**관점, 하나의 생명, 날 쥐, 천산갑, 생명 에너지, 「빗속의 매」**

논문접수일: 2011. 11. 21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20

이름: 김명옥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메일: kidio214@naver.com